

람들을 너무도 비참하게 만드는 정욕을 묘사해 보여준다
거나, 그들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네. 마치 바위에 부딪
혀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나는 고독 속에서
나머지 다른 세상에서 범석이는 폭풍우를 바라보고 있는
게지. 나의 안식은 멀리서 들려오는 풍랑 소리에 오히려
더욱 평안해진다네. 내가 가는 길 위엔 이제 사람들이 없고,
나 또한 더 이상 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니, 내 더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네. 그저 측은하다는 생각이야.
역경에 처한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조안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네. 물가를 지나가던 행인이
급류에 휘말려 물에 빠진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듯이
말이야. 하지만 순진무구한 사람 외에 내 목소리에 귀 기
울이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 자연은 나머지 다른 인
간들도 자연으로 불러들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네. 그들
각자는 제 나름의 정욕을 들썩워 자연의 형상을 만들어 버
리는 게야. 평생을 이 헛된 환상을 좇아 길을 잃고, 그러다
가 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하늘에 대고 불평해. 이따금
자연으로 다시 돌려놓으리라 노력했던 수많은 불행한 사
람들 중에, 나름 비참하다는 자기 처지에 심취해 있지 않은
사람일랑 내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 처음에는 명예나 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리라 기대하며 내 말을 경청했지만,
내가 그린 것들 없이도 잘 지내는 방법 외에는 가르쳐줄